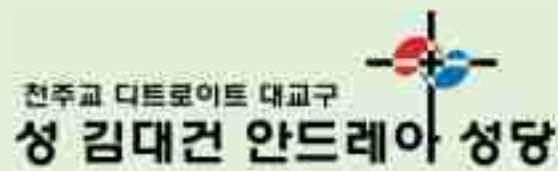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제 38 호 2023년 2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올림

- 38 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내가 들은 말들이나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48 절: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So be perfect, jus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분 닮게 살아가려고 최소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잠김

47 절: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And if you greet your brothers only, what is unusual about that?”)

대학생 시절 저를 아주 예뻐해 주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들었고 특별히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분을 곧잘 따르고 예의를 다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겨울날 가까운 친척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대학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병원에서 그 어르신을 뵙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그분도 지인의 병문안을 마치고 마침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시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함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있었는데 저쪽에서 포대기에 아기를 둘러업고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아기 엄마가 우리 앞으로 힘겹게 걸어오더니 막 들어오는 택시를 잡아서 급하게 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르신의 표정과 음성이 바뀌더니 젊은 사람이 경우 없이 새치기를 한다며 그 엄마를 마구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양보할 마음이 들법한 짠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었던 저는 무척 당황하였고 그 아기 엄마도 너무 무안해하였습니다. 곧바로 저는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아기엄마가 타려던 택시를 타게 되었고 그렇게 그 엄마를 뒤로한 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아기와 엄마가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리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는 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친절을 베풀고 좋아하며 살아간들, 신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든,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옹졸한 모습이라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그분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 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을 봉헌해서 구원의 약속을 거쳐 주신 것처럼 우리 신양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tan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말씀의 울림

- 9절: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All these I shall give to you, if you will prostrate yourself and worship me.”)
 이 유혹자의 말처럼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나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반성해 복시다.
- 10절: “그분만을 섬겨라.”
 (“And him alone shall you serve.”)
 지금 내 마음과 생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복시다.

말씀에 잠김

4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아버지의 권유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의 작고로 남은 가족들이 너무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큰 빚을 떠안고 집도 은행으로 넘어가 좁은 셋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평생 주부로 지내던 자매님은 갑자기 생활전선으로 뛰어들며,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면서도 혼자 남은 그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기도 가운데 조심스럽게 자매님께 세례받기를 권유했습니다. 성당 교우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남편분을 위해 끊임없이 연도를 해주시던 그 기억이 고맙고 큰 위로가 되었다며, 남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일 후에도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의 아홉 살 막내아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그분을 대신해 경찰서와 법원 등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남편분의 장례식에서 오열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연 잘 버텨내실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성당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시기도 하고, “하느님도 너무 하시다.”라는 말들을 하며 슬퍼하고 침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아들은 세 명의 생명을 살리고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가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큰 슬픔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아버지로부터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의식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교리 수업 때 배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에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먹어라.” 이 말씀과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성가 가사도 떠오르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살과 피를 나눈다면 영원히 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당을 다닌 지 오래된 분들도 ‘무심한 하느님’을 탓하며 걱정하고 비통에 잠겨있을 때,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이해로 보기에도 아이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끝끝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지만, 그분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붙들고, 자신의 아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슬픔과 절망, 낙담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말씀은 그분이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가끔 내가 예수님을 침묵하시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 나는 도저히 헤아릴 길 없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는 일, 그것에 나를 투신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를 새로운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간직해 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과분한 직분을 맡겨 주심에

김광수 프란치스코

매년 찾아오는 미시간의 가을 단풍은 이곳에 자리 잡아 살아오며 때마다 받게 되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아름답고, 인간의 능력이 감히 미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느님의 권능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거기에 작년 봄부터 사진 촬영기법을 배우기 시작한 저는 그 자연경관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욕망과 열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흥분되는 마음으로 미시간의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목표한 촬영지점을 찾아드니 과연 그 풍광이 저를 압도하여 그 저녁부터 밤까지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대며 모처럼 제게 다가온 자유와 평온함을 만끽하며 하늘로 올라갈 만큼 스스로 대견해하며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랜 직장생활을 4년 전에 마칠 때, 이제야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한국에 돌아가 그리운 분들도 만나고 또한 그간 세상을 두루 다니고 싶었던 염원을 이룰 때가 왔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었으나, 예기치 않던 건강 문제, 그 뒤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취미에 재미를 붙이고 또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세상이 점차 개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얻은 휴가 여행이니 그 흥분감과 들뜬 마음은 쉽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미시간이지만, 내일은 또 어디든 가리라. 좋은 곳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에 마음이 고조되고 앞으로의 계획이 막 떠올라 생각에 생각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곧 만날 수 있을지 물으셔서 지금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당장 뵐 수 없고 내일 저녁에 사제관으로 뵐려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바로 전까지 느꼈던 ‘자유와 평온함’은 사라지고 여러 복잡한 생각과 느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을까? 보통의 용건이면 전화로 말씀하셨을 텐데, 만나서 말씀하실 긴요한 주제는 뭘까? 다른 건 몰라도 혹시 본당 일을 맡기실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만에 하나, 그 말씀을 꺼내신다면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양 의사를 밝혀야 돼. 내가 그런 직책을 어떻게 맡을 수 있어? 아닐 거야.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잖아. 거기에는 지금 또다시 새장에 갇혀 있을 걸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사람들이 ‘새’를 보고 얼마나 말이 많을까? 그러니, 절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신부님 마음 안 상하게 마음을 접으실 수 있을까? 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질책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까다로운 요구에 참을성이 없습니다. 과분한 직책에

대해 적응력도 없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할 능력도 없습니다. 특히 성당에서. 그리고 저희 내외는 지난 6년간 본당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 봐야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봉사 기회를 드려야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내가 고심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길 바라면서, 만일 내일 그 얘기를 꺼내시면 진짜로 단호히 대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도착하여 준비하고 사제관으로 가려니, 신부님께서 저희 집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시자 마자 신부님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시고 새로운 신부님께서 1월에 부임하신다. 새 신부님을 보좌할 사목회장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 직분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짐작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 준비했던 생각을 단호히 말씀드릴 수밖에요. 저는 한참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께서는 저를 설득하시려고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당장 답을 못 하시면 말미를 드릴까요?” 하셨습니다. 얼마간 침묵 속에 제 마음이 다음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그 제안을 하실 때는 많은 고려를 하시고 오셨으리라. 인물을 찾으시느라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여기서 답을 멈추면 신부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가 없겠네. 내가 지금 신부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나? ‘그동안 부르심에 순명하자. 깨어 있어라.’라고 스스로 했던 마음 다짐은 어디로 갔나?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요 미사를 위한 셀라 성가를 선곡할 때면 소명, 부르심, 산 제물 등 이런 가사가 있는 곡은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마음때문이였구나. 앞에 앉아 계신 신부님 앞에서 생각이 다른 나의 두 자아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신부님, 말미는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제게 그 직분을 맡기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어언 40일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연말이나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신부님께서 함께 할 신임 사목 위원 인선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의 길에 동참하시는 형제자매들을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 하느님께 응답한 이분들께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일해 열성을 다해봅시다. 성모님과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 기도 자리에 내리신 바로 그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하면 거침없이 나아갈 용기와 맑은 분별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사를 주시니, 결국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 무심히 바치는 아침기도 속에 제 존재 이유와 경외로운 약속이 들어 있었으니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 겸손한 마음으로 아침기도를 올리겠습니다.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아멘.

동네방네 메아리

- CT: 말씀 살기 논의 내용입니다. 1. CT 반이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자. 2. 참신양인이 되자. 3. 좀 더 나누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신양인이 되자. 4. 사람의 표양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룰모델이 되자.
- NV1: 실천 사항 내용입니다. 1. 기분이 언짢을 때 성호경과 짧은 기도하기 2. 주변에 쉬는 교우 연락하기
- NV2: 실천 사항 내용입니다. 1. 새로운 반 모임의 반원끼리 인사 하기 2.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사항

1.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사제와 수도자를 위한 기도드리기
2. 사순을 맞아 우리가 실천할 보속이나 희생을 결심하고 2 월 22 일 재의 수요일 미사에 참여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